

韓國의 自生蘭

—40屬 78種으로 알려져—

[편집자주: 本稿는 우리나라 自生蘭보호문제와 自生蘭 애호가들의 활동상황을 張茂雄 嶺南大교수의 자료제공 및 吳事務局長과의 書面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近年에 들어 生活의 여유가 생기면서 원예를 즐기는 人口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식물을 관찰하고 있으면 시간이나 경제활동에 속박되는 일이 없고 타인과의 교제의 번잡함으로부터 해방되어 無我的境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人間の 기호도 점차로 변하여 대상 식물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그 中에 蘭의 애호가도 크게 증가된 것이 특이할만하다.

蘭科植物은 종류도 많고 생태적으로도 多樣的 환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나 생리적으로도 변화의 폭이 넓어 깊게 연구할 소지를 갖고 있다.

난과 식물은 양극, 한대, 사막의 건조지대를 제외한 전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열대권에는 종류도 개체도 많아 原種의 총수는 5백~8백屬, 2만~3만種으로 추정되고 종자식물의 단자엽류 중에서 가장 진화된 多年生の 초본식물이고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 때문에 원예적으로 중요시되며 재배도 성행되고 있다.

관상용으로는 유럽보다 열대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원산지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애완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韓國, 中國, 日本 등에서도 春蘭, 석곡(石斛), 風蘭 등이 옛날부터 재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 自生하는 난 종류는 정확한 보고는 없으나 40屬 78種의 自生蘭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 관상용으로 춘란, 한란, 새우란, 여름새우란, 석곡, 풍란, 나도풍란, 자란 등의 몇 종이 있다. 2차대전후 美國, 유럽,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열대원산의 양란은 대량생산과 아

름다운 꽃으로 일반에게 잘 알려지게 되어 최근 서양란을 일반적으로 난이라 부르고 옛날부터 재배, 관상되어온 난은 동양란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동양란, 서양란이란 명칭이나 분류는 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일본인의 독특한 명칭으로서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원예적으로 부른 일반적인 명칭이고 식물분류학상으로는 꼭 같은 난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人類와 옛부터 친숙

난과식물은 관상용외에도 여러가지로 利用되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류에 첨가시키는 향료의 바니린은 自生蘭인 *Vanilla fragrance*의 과실에서 얻어진 것이고 유럽자생인 *orchis*의 괴경으로부터 Salep이라고 하는 진통제가 얻어졌다. 동양에서는 「으름」난초의 과실을 건조시켜 강장·강정제로, 석곡의 식물체를 건조시켜 건위제로 이용되었다. 이같이 난과 인류와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생각된다.

蘭의 性狀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의 도서에서 자생하는 풍란, 석곡, 자란, 흑난초, 대엽풍란으로 알려진 *Sedirea Japonica*(풍란과는 전혀 다른속이고 잎과꽃도 다르기 때문에 대엽풍란이란 명칭은 적당치 않다고 張茂雄교수(嶺南大 生物學)는 말한다)는 나무줄기나 바위겉에 부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서양란이라고 불리는 열대및 아열대 난의 대부분은 풍란과 같이 나무 줄기에 부착해 있다. 이같은 난을 착생란이라 하며 굵은 뿌리를 나무줄기나 바위겉에 굳게 부착시켜 적은 수분이나 양분을 능률적으로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다. 한편 춘란이

나 새우란 등과 같이 地上生活을 하고 있어서 뿌리가 흙속으로 퍼져있는 것을 地生蘭이라 한다. 이들은 光合成에 의한 독립영양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천마, 으름난초 등은 잎이나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없고 곰팡이등과 공생해서 부생하는 부생식물이다. 부생생활을 영위하는 난대계절이 되면 지하의 근경 또는 괴경에서 줄기가 나와 꽃이 피고 과실이나 종자가 형성된다. 이와같이 탄소원을 체외에서 획득하는 종속 영양의 난은 인위적으로 재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음은 本會 吳判龍 사무국장과 張茂雄 嶺南대학교수의 紙面대화를 통해 自然公園의 애호와 희귀식물의 보호를 위한 한국 자생란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우리나라 自生蘭 分布地域別 種數는

▲ 한국에 自生하는 蘭은 정확하게 보고된 일은 없으나 40속78종의 자생란이 알려져 있습니다(한국식물도감).

—自生蘭을 蘭애호가들이 채취하여 가정에서 기른다면 멸종될까 염려스러운데 선생님의 견해는……

▲ 난의 종류에 따라 멸종될 위험도 있고 또는 현재의 상태로는 그렇지 않은 종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풍란, 대엽풍란, 석곡 등은 멸종위기로 사료됩니다. 그외 특히 춘란은 아직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자생란 애호가들이 지역별로 보호책임제로 행정당국(郡, 面)에 등록하여 자연그대로 보호관찰하면서 즐기는 방법의 모색 여부는(이는 채종권을 얻는 방법도 될줄 압니다만 과연 蘭이 채종으로 번식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져 합니다).

▲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제주 한란은 남획하여 밀반출하는 바람에 멸종되어 간다는데 이의 번식방법이 있는지요.

▲ 한란은 濟州大의 “이종석” 교수와 慶北大의 “정재동” 교수가 조직배양을 대량으로 하

기 때문에 멸종의 위험은 없으나 한라산의 자생지는 지금 상태로 매우 황폐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보존지역은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蘭애호인회」라는 명칭은 무난하겠지만 자생란이 採種으로 번식이 안되었을 경우 「자생란 보존회」란 산에서 채취함을 뜻하기에 自然보호및 자연공원 보존관리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현상인데 이런 경우 선생님의 학자적인 견해는 어떤지요.

▲ 『그와같은 의견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자생란 보존회」는 통채로 하는 사람이 있으나 많은 회원들이 선택적으로 채집하고 귀중한 種들은 잘 번식시키고 있으므로 그렇게 문제시하지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大葉風蘭을 紅島에 移植계획 自生蘭 번식환경 좋아져

또한 「대구자생란회」에서는 나도란(대엽풍란)을 대량으로 번식(조직배양)시켜 흥도지역에 이식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으로 보아 자생란 보존회는 어디까지나 자생란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난 자생지를 조사하였는데 원형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 많고 최근에는 全國土의 산림보호가 잘 되어가고 있어 자생란의 환경이 더욱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생란의 번식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야생식물은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번식도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증거로 부식토가 매년 개선되어 가고 부식토가 두꺼워지면 그만큼 야생식물의 증식 환경은 개선되므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생란및 희귀식물의 애호가들은 보존과 확대보급으로 미래를 겨냥한 새로운 양식을 수립하여 이름그대로 애호인의 공지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崔)